

무안보건소 신청사 시대 '활짝'...지역 보건 핵심 거점 발돋움

277억 투입...연면적 1만1천155㎡·기존 청사 5배 규모 보건·건강·재활 시설 확충 등 주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

무안군보건소가 54년간의 무안군청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옛 무안5일시장터로 이전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발돋움 한다.

14일 무안군에 따르면 신청사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밀집해 접근성이 우수한 옛 무안5일시장터(무안읍 면성1길128번지)로 이전했다.

군은 총 사업비 277억여원을 투입해 2021년 10월 착공, 올해 3월 준공을 완료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건축면적 1천745㎡, 연면적 1만1천155㎡ 규모로 건립돼 165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또 기존 청사의 5배가 넘는 규모로

다양한 건강 관리 시설과 주민편의 시설을 추가했다.

신청사는 오는 5월 개소하는 무안군 복합문화센터와 함께 도시와 문화·보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농균형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는 넓어진 공간만큼 보건·진료·건강 시설을 확충해 질 높은 보건의료와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2층에는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력단련실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실, 영양실습실, 재활운동실이 새롭게 들어선다.



무안군보건소가 최근 무안읍 면성1길128번지 '옛 무안5일시장터'로 이전했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 5배 규모로 165대의 주차 공간과 다양한 건강관리 시설, 주민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보건소 외부 전경,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모습.



무안군보건소가 최근 무안읍 면성1길128번지 '옛 무안5일시장터'로 이전했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 5배 규모로 165대의 주차 공간과 다양한 건강관리 시설, 주민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보건소 외부 전경,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모습.



무안군보건소가 최근 무안읍 면성1길128번지 '옛 무안5일시장터'로 이전했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 5배 규모로 165대의 주차 공간과 다양한 건강관리 시설, 주민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보건소 외부 전경,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모습.

외부에 있던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로 이전해 치매정책과 접목한 차별화된 노후 준비를 위해 상담실, 검진실, 정밀진단실, 인지학습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시설로 새롭게 단장한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도 지난해 20개소에서 올해 50개소로 확대 운영해 신규 방문대상자를 발굴·관리하고 통합 건강관리서비스인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재활 ▲정신 ▲치매조기검진 ▲구강검진 등으로 수준 높은 건강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보건소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공의료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기자

목포시, 양대 소년체전 성공 개최 준비 '만전'

대회 운영위원회 결의·협력체계 구축

목포시가 전국소년체전·전국장애학생체전의 성공 운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목포를 주 개최지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앞두고 제2회

운영위원회 성공다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박홍을 시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목포시 기관·단체장 등 110여명이 참석해 식전 축하공연,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추진 경과 보고, 성공다짐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제2회 운영위원회는 박 시장을 위원장

으로 주요 기관·단체장들과 지난해 3월 구성, 2025년 전국장애학생체전이 종료될 때까지 협력체계 구축과 대회 준비를 위한 자문·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박홍을 시장은 "지난해 양대체전에 이어 2024년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스포츠 선진도시 목포의 이미지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며 "각급 기관·단체뿐만 아

니라 많은 시민들의 협조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오는 5월14일부터 17일까지 17개 종목, 3천500여명이 참가하고,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은 오는 5월25일부터 28일까지 36개 종목 1만8천여명의 선수들과 임원진이 참가하는 전국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축제다. /목포=정해선기자



목포시가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성공 운영을 위해 제2회 운영위원회 성공다짐 대회를 열었다. (목포시 제공)



나주시-담양군, 네 번째 고향사랑 상호기부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 공원녹지과,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네 번째 고향사랑 우의를 다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나주시, 담양군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담양군 직원들은 전남도 민간정원 1호인 마중 3017을 방문해 나주시의 우수 정원문화산업을 벤치마킹했다.

양 기관의 상호 기부는 지난 2월 양 기관 도시과, 3월 나주시 세무과 및 담양군 기획예산실, 나주시 동월 일자리경제과 및 담양군 경제교통과가 교차기부에 동참한 바 있다.

이번 교차 기부는 광장은 나주시 공원녹지과 팀장과 김은주 담양군 산림정원과의 오랜 인연에서 비롯됐다.

곽 팀장의 배우자와 김 과장은 과거 진도군에서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 임사 동기 인연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은 "양 지자체 간 업무 공유와 고향사랑기부 등 상생발전을 위한 후호관계를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담양군이 1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나주시가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했다. /나주=정종환기자

신안 섬 간재미 축제 '팡파르'

19-21일 도초면 화도항 물양장

신안군은 14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도초면 화도항 물양장에서 '제5회 섬 간재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안 1004섬의 수산물 홍보와 판매 촉진, 지역민 화합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도초 주민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한다.

간재미는 신안 지역에서 주낙을 이용해 잡으며 양식 가능 어종이 아니다. 간재미의 이름은 정약전의 '자산어보'의 '간잠어'에서 유래했다. 이 생선은 육질이 단단하며 손질할 때 물로 씻으면 살이 흐물거려져 맛이 떨어지기 때

문에, 막걸리로 세계 문질러 닦아 육질을 연하게 만든 후, 초고추장과 채 썬 무, 미나리를 넣고 새콤달콤하게 버무려 회무침으로 즐긴다.

간재미의 부드러운 살과 꼬들꼬들한 물렁뼈가 어우러진 식감은 여러 회무침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축제에서는 간재미 곱질 빗기, 간재미 얇게 썰기 등 참여객의 흥을 돋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신안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선보이고 수산물 산업 활성화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양훈기자

'2024 영광 방문의 해' 이벤트 추진

추진상황 보고회서 관광객 유치 각종 이벤트 공요

영광군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2024 영광 방문의 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회는 2024 영광 방문의 해 추진개요를 시작으로 ▲중점사업 16건 ▲실과소 연계사업 45건 ▲읍·면 연계사업 28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영광군은 관광객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체험형·체류형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모바일 스탬프 챌린지 투어 ▲영광 섬 투어 ▲여행경비 지원사업 ▲영광에서 한달 여행하기 등 관광이

벤트를 운영한다.

또 전국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단체관광객 유치인센티브 지원 ▲유료 관광지 입장료·체류료 반값 할인 ▲최대 20% 특가상품 할인 등 각종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

강종만 군수는 "2024 전남도 양대체전을 시작으로 1천만 방문객 시대를 열고 전국적으로 군만이 가진 4대 종교 문화유적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타지역의 비교 우위에 있는 관광 경쟁력을 갖춘 영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완도 '황칠 약주' 대한민국 주류 대상

전통부문서...안식향·자가 누룩향 어우러진 고급 약주

완도군은 14일 "관내 주류 업체인 고급주조장에서 만든 '장보고의 꿈, 황칠 약주'가 2024 대한민국 주류 대상의 우리 술 약주, 청주 전통 주류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진)

2024 대한민국 주류 대상은 2014년부터 조선비즈에서 개최하는 주류 품평회로 전문 주류 시음단의 심사를 통해 주종별 최고의 술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218개 업체, 총 1천61개 브랜드가 참가했다.

'장보고의 꿈, 황칠 약주'는 국내산 유기농 통밀을 뿔아 손수 만든 누룩과 완도 쌀을 세 번 발효시킨 삼양주로 특히 완도 특산물인 황칠나무의 안식향과 자가 누룩의 향이 어우러진 고급 약주다.

배준현 고급주조장 대표는 "완도 쌀



과 황칠나무를 활용한 전통주 제조로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 이번 수상이 더욱 뜻깊다"며 "황칠 약주가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급주조장은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지역 향토기업이다. 100년 기업을 목표로 '장보고의 꿈 황칠 약주' 외에도 '장보고의 꿈 비파', '유자 막걸리' 등 약주 뿐만 아니라 탁주 등 다양한 술을 생산 중이다.

박창희 농업축산과장은 "앞으로 전통주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적극 발굴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해남 어린이공원 친환경 목재 시설로 교체

해리동백 어린이공원 등 5개소

해남군이 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목조로 리모델링하는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서림공원 어린이 놀이터에 이어 이달에는 해리동백 어린이공원이 새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사진)

이번 사업은 기존의 플라스틱 소재 놀이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친환경 소재인 목재로 만들어진 놀이시설로 전면 교체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게 된다. 놀이시설과 함께 탄성 바닥재와 주변 환경도 개선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로 조성된 놀이터에는 친환경 목재를 이용한 조팝 놀이대, 가동목 건너기,

흔들다리 건너기, 터널 통과하기와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트램폴린, 시소, 흔들자 등이 마련됐다. 또한 보호자들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흔들그네, 정자 등이 설치돼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은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해남내 공원 5개소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목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리동백 어린이공원은 2번째 대상지로 올해는 해리신공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활기차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성후에도 꾸준한 공원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